

<별첨>

## 인 적 사 항

1. 성 명(국문) : **황윤재**

(한문) : 黃潤宰

2. 생 년 월 일 : 1960년 8월 26일


3. 현 직 :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및 경제학부 교수

4. 학 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1983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1985  
미국 예일대학교 경제학 박사, 1991



5. 주요경력 및 연구업적(5개 항 이내) :

- 경 력 : ①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조교수 (1991-1992)  
② 한국계량경제학회 회장 (2015)  
③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장 (2018-2020)  
④ 한국경제학회 KER 편집위원장 (2018-2021), 부회장 (2021)  
⑤ Econometric Society 종신석학회원 (2010 선출)

- 연구업적 : ① **[Book]** *Econometric Analysis of Stochastic Dominance: Concepts, Methods, Tools, and Applications* (2019), Cambridge University Press.
- ② Consistent Testing for Stochastic Dominance under General Sampling Schemes (with O. Linton and E. Maasoumi) (2005), *Review of Economic Studies* 72, 735-765.
- ③ Testing for Stochastic Monotonicity (with S. Lee and O. Linton) (2009), *Econometrica* 77, 585-602 
- ④ The Cross-Quantilogram: Measuring Quantile Dependence and Testing Directional Predictability between Time Series (with H. Han, O. Linton and T. Oka) (2016), *Journal of Econometrics* 193, 251-270.
- ⑤ Inference on Distribution Functions under Measurement Error (with K. Adusumilli, D. Kurisu, and T. Otsu) (2020), *Journal of Econometrics* 215, 131-164.

## 자기 소개서

많은 점에서 부족한 제가 한국경제학회 수석부회장 후보로 추천되어 큰 영광이면서도 막중한 임무를 생각할 때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한국경제학회 회원 여러분께 간단히 제 소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 후 79학번으로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학부시절을 돌이켜볼 때, 훌륭한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좋은 선후배 및 동료들과의 토론 덕분에 경제학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었고 경제학이 현실에 접목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학문 중 하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당시 학계에서 비교적 새롭게 소개된 비모수 및 준모수적 계량모형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주로 거시경제학, 재무경제학 및 응용미시경제학 등 다양한 경제학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계량경제학 방법론을 개발하는 이론적 연구에 집중하였지만, 데이터를 이용하여 현실 경제 문제에 응용하는 연구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1992년 귀국 당시 국내 연구 환경은 현재와는 매우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대중화되지 않은 시기가 외국 논문을 보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헤매거나 해외로 직접 나가 복사를 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비슷한 시기에 귀국한 많은 연구의지가 넘치는 소장학자들이 서로를 자극하며 자발적으로 연구회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세미나도 개최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저는 학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고, 한국경제학회 청람학술상, 매경이코노미스트상, 다산경제학상과 같은 과분한 상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는 Econometric Society를 비롯한 여러 세계적인 학술단체의 종신석학회원으로도 선출되었고, 2020년에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최초로 서울대학교 석좌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또한 한국경제학회의 경제학연구 편집총간사위원 및 KER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계량경제학 분야의 탐저널인 Econometric Theory의 공동편집위원장으로 현재 활동 중입니다. 수많은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국내외 학자들과 교류하였으며, 여러 국제적인 학술대회의 조직 위원장으로서도 학계에 봉사하였습니다.

저는 사회봉사활동은 연구 활동에 비하여 다양하게 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학계에 머무르는 동안, 한국 사회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경제학 연구가 현실 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학계 차원의 큰 사고틀의 변화가 필요하며, 한국 경제의 현실에 꼭 맞는 맞춤형 경제학을 개발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경제학자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연구 목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8-2020년 동안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장으로 일하면서,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는 연구를 장려하고자 많은 정책포럼을 개최하였고 각종 연구비를 조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많은 젊은 연구자들이 현실에 직접적으로 접목되기 어려운 이론 연구에 집중하거나, 실증 연구의 경우 미국 등 외국 데이터를 주로 이용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학계가 큰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업적 평가시스템 개선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저는 한국의 경제 현상을 학문적으로 잘 설명하는 이론적 체계를 개발하거나, 한국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 연구가 국제 학계에서 중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분야에 있어서 주요 저널의 편집인 등 세계 학계의 중심 및 현실적 세계 경제의 리더들과 한국 학계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의 국제 학계에서의 활동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한국경제학회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된다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학계와 사회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를 위한, 세계와 함께 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회원 여러분들이 상생하는 그러한 한국경제학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 약 사 항

한국경제학회는 올해 7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학회로서 존경하는 명예회장님들과 회원님들의 노력으로 끊임없이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된다면 학회의 기존 사업과 사업계획을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계승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1. 다양한 배경을 가진 회원 여러분들이 소통하고 상생하는 학회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지회의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 경제 과제를 함께 토론함으로써 지역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정책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둘째, 학계에서 급속히 비중이 증가하는 여성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젠더 관련 주제로 한국어 성경제학회 및 여성단체들과 공동으로 정책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셋째,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에서 지역별, 성별, 세대별 다양한 배경의 학자들을 참여시켜 학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 **2. 세계적인 학술행사를 유치하여 한국경제학계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2025년 8월 개최될 세계경제학자대회 (World Congress of the Econometric Society, 이하 WC)를 포함한 국제적 학술행사들을 유치하겠습니다. Econometric Society (이하 ES)는 1930년 Irving Fisher를 초대회장으로 수학 및 통계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경제현상을 분석하고자 하는 경제학자들이 모여 설립한 학회로서, 현재 경제학의 전 분야를 포괄하는 대표적인 국제적 경제학회입니다. WC는 ES가 5년 마다 개최하는 경제학 분야 최대 국제대회로서 경제학자들의 올림픽과 같은 행사입니다. 이 대회는 4,000명 이상 거의 모든 전공 분야의 각국 경제학자들이 참가하고,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 및 세계 경제의 리더들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적 행사입니다. 만일 한국에서 WC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한국경제학계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세계적 학계로 한 차원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WC는 한국의 자료로 한국의 이슈를 연구하는 다양한 연구자들이 자신의 결과들을 발표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이를 통해 한국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그에 기반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가능성도 높일 것입니다. 또한 WC는 경제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발하고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미래비전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 학회 기금조성을 통하여 연구지원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학회 재원을 확충하여 연구기금을 조성하고 다양한 배경의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지원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첫째, 우수한 지방 소재 연구자와 신진학자들의 국내외 학회 참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대학원생 발표 세션을 정기학술대회에 포함시키고 중견연구자의 멘토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당해 연도 국내 대학 박사 졸업 논문 중 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포상과 함께 학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 **4. 경제학 교육 및 대중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첫째,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분야별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계의 첨단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가칭 '한국경제학회 여름캠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중고등학생 및 일반 대중에 대한 경제학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